



2024 신문이 들려주는 숲 이야기 NIE 패스포트

# 신문이 들려주는

# 숲 이야기

고등학생용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2024 '신문이 들려주는 숲 이야기' NIE 패스포트

CONTENTS

일러두기	03
자기소개	04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05
활동 메모	06
<hr/>	
01. 우리 동네 숲을 소개하기	08
02. 숲과 관련된 노래 형상화하기	10
03. 우리 학교에 숲 정원 꾸미기	12
04.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란 뭘까	14
05. 탄소 배출량 세계 8위 한국, 탄소 중립 방법은?	16
06. 산림, 이산화탄소 흡수로 지구를 지킨다.	18
07. 심고 베고 또 심는 지속 가능한 숲	20
08. 나무도 훌륭한 자원	22
09. 산불 증가 대응책 마련하기	24
10. 내가 찾은 한국의 명품 숲	26
11. 숲을 지키는 파수꾼	28
12. 산림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준비하기	30
<hr/>	
VISA (확인서)	33

일 / 러 / 두 / 기

'신문이 들려주는 숲 이야기' NIE 패스포트 사용법

- ✓ 2024 '신문이 들려주는 숲 이야기' NIE 패스포트은 어린이·청소년 스스로 신문 읽기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소통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워크북입니다. 이 패스포트는 주어진 물음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는 12개의 다양한 주제로 정리해 묶었습니다.
- ✓ 활동 주제는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스포트에 나온 주제를 차례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10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 활동은 관심 있는 주제부터 하면 효과적입니다. **패스포트에 실린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주제를 선택**해서 활동해도 됩니다.
- ✓ 사용할 수 있는 신문은 **2018~2024년 발행된 신문**입니다.
- ✓ 보조자료로 인터넷 뉴스, 서적 등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주제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개별 또는 모둠 모두 가능하지만 개별 활동을 권합니다.
- ✓ 활동 내용을 정리할 때 **볼펜**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연필로 적을 경우라면 뚜렷이 드러나게 필기해야 합니다.
- ✓ 스크랩한 신문 자료가 클 경우, 자료를 접어 패스포트에 붙여도 됩니다.
- ✓ 활동 날짜, 참고한 신문과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 ✓ '나의 활동 메모'(6쪽)는 **활동한 날짜**를 씁니다.
- ✓ 과제를 모두 마치면 뒤쪽에 있는 '비자(visa)' 페이지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확인'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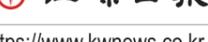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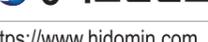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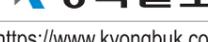
2024 '신문이 들려주는 숲 이야기' NIE 패스포트는 교과별 수행평가와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진로활동)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 자기소개

자신의 사진을 직접 붙이거나  
캐릭터 그려 넣기

	이름
	학교
	학년/반
	주소
	연락처
	발급일
	활동기간
	서명

#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 |   |   |  |  |
|---|---|--|--|
| <br>경향신문<br><a href="https://www.khan.co.kr">https://www.khan.co.kr</a>                        | <br>국민일보<br><a href="https://www.kmib.co.kr">https://www.kmib.co.kr</a>              | <br>내일신문<br><a href="https://www.naeil.com/">https://www.naeil.com/</a>           | <br>대한경제<br><a href="https://www.dnews.co.kr">https://www.dnews.co.kr</a>               |
| <br>동아일보<br><a href="https://www.donga.com">https://www.donga.com</a>                          | <br>매일경제<br><a href="https://www.mk.co.kr">https://www.mk.co.kr</a>                  | <br>머니투데이<br><a href="https://www.mt.co.kr">https://www.mt.co.kr</a>              | <br>문화일보<br><a href="https://www.munhwa.com">https://www.munhwa.com</a>                 |
| <br>브릿지경제<br><a href="https://www.viva100.com">https://www.viva100.com</a>                     | <br>서울경제<br><a href="https://www.sedaily.com">https://www.sedaily.com</a>            | <br>서울신문<br><a href="https://www.seoul.co.kr">https://www.seoul.co.kr</a>         | <br>세계일보<br><a href="https://www.segye.com">https://www.segye.com</a>                   |
| <br>스포츠서울<br><a href="https://www.sportsseoul.com">https://www.sportsseoul.com</a>             | <br>스포츠조선<br><a href="https://www.sportschosun.com">https://www.sportschosun.com</a> | <br>아시아경제<br><a href="https://www.asiae.co.kr">https://www.asiae.co.kr</a>        | <br>아주경제<br><a href="https://www.ajunews.com">https://www.ajunews.com</a>               |
| <br>이데일리<br><a href="https://www.edaily.co.kr">https://www.edaily.co.kr</a>                    | <br>전자신문<br><a href="https://www.etnews.com">https://www.etnews.com</a>              | <br>조선일보<br><a href="https://www.chosun.com">https://www.chosun.com</a>           | <br>The JoongAng<br><a href="https://www.joongang.co.kr">https://www.joongang.co.kr</a> |
| <br>The Korea Times<br><a href="https://www.koreatimes.co.kr">https://www.koreatimes.co.kr</a> | <br>한겨레<br><a href="https://www.hani.co.kr">https://www.hani.co.kr</a>               | <br>한국경제<br><a href="https://www.hankyung.com">https://www.hankyung.com</a>       | <br>한국일보<br><a href="https://www.hankookilbo.com">https://www.hankookilbo.com</a>       |
| <br>헤럴드경제<br><a href="http://biz.heraldcorp.com">http://biz.heraldcorp.com</a>               | <br>news 1<br><a href="https://www.news1.kr">https://www.news1.kr</a>              | <br>연합뉴스<br><a href="https://www.yna.co.kr">https://www.yna.co.kr</a>           | <br>강원도민일보<br><a href="https://www.kado.net">https://www.kado.net</a>                 |
| <br>江原日報<br><a href="https://www.kwnews.co.kr">https://www.kwnews.co.kr</a>                  | <br>경기일보<br><a href="https://www.kyeonggi.com">https://www.kyeonggi.com</a>        | <br>경남신문<br><a href="https://www.knnews.co.kr">https://www.knnews.co.kr</a>     | <br>경남일보<br><a href="https://www.gnnews.co.kr">https://www.gnnews.co.kr</a>           |
| <br>경북도민일보<br><a href="https://www.hidomin.com">https://www.hidomin.com</a>                  | <br>경북매일<br><a href="https://www.kbmaeil.com">https://www.kbmaeil.com</a>          | <br>경북일보<br><a href="https://www.kyongbuk.co.kr">https://www.kyongbuk.co.kr</a> | <br>경상일보<br><a href="https://www.ksilbo.co.kr">https://www.ksilbo.co.kr</a>           |
| <br>경인일보<br><a href="http://www.kyeongin.com">http://www.kyeongin.com</a>                    | <br>광주일보<br><a href="http://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a>        | <br>국제신문<br><a href="https://www.kookje.co.kr">https://www.kookje.co.kr</a>     | <br>대구일보<br><a href="https://www.idaegu.com">https://www.idaegu.com</a>               |
| <br>대전일보<br><a href="https://www.daejonilbo.com">https://www.daejonilbo.com</a>              | <br>每日新聞<br><a href="https://news.imaeil.com">https://news.imaeil.com</a>          | <br>부산일보<br><a href="https://www.busan.com">https://www.busan.com</a>           | <br>영남일보<br><a href="https://www.yeongnam.com">https://www.yeongnam.com</a>           |
| <br>울산매일<br><a href="https://www.iusm.co.kr">https://www.iusm.co.kr</a>                      | <br>全羅日報<br><a href="https://www.jeollailbo.com">https://www.jeollailbo.com</a>    | <br>전북도민일보<br><a href="https://www.domin.co.kr">https://www.domin.co.kr</a>     | <br>全北日報<br><a href="https://www.jjan.kr">https://www.jjan.kr</a>                     |
| <br>제주일보<br><a href="https://www.jejunews.com">https://www.jejunews.com</a>                  | <br>중도일보<br><a href="https://www.joongdo.co.kr">https://www.joongdo.co.kr</a>      | <br>중부매일<br><a href="https://www.jbnews.com">https://www.jbnews.com</a>         | <br>중부일보<br><a href="https://www.joongboo.com">https://www.joongboo.com</a>           |
| <br>충청투데이<br><a href="https://www.cctoday.co.kr">https://www.cctoday.co.kr</a>               |   |  |  |



# 나의 활동 메모

### 참고

- ✓ 활동 순서는 패스포트에 실린 목차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 ✓ 활동주제 수는 **10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 아래표에서 '확인'은 주제 수행을 마쳤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는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순번	날짜	활동주제	한 문장 소감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 1. 우리 동네 숲을 소개하기

‘숲세권’이란 말은 녹지 공간을 뜻하는 ‘숲’과 역세권의 ‘세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처럼 숲이 주는 좋은 영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거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숲이 갖는 가치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다음 기사를 읽고 숲의 가치를 알아보는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국민일보 2023년 5월 30일 31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돋을새김] 동네 숲의 가치



김찬희  
산업1부장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동네 숲이 있다. 베란다에서 창 너머로 산들거리는 초록색 나무들과 파란 하늘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포근해질 정도는 된다. 터를 잡을 때만 해도 가녀렸던 나뭇가지들은 세월의 옷을 입으면서 굵은 몸집으로 자랐다. 키작던 메타세콰이아들은 하늘로 높게 뻗었다. 웅장한 ‘근육’의 메타세콰이아 사이로 난 흠길을 끝까지 걸으면 15분 남짓 걸린다. 옆으로 딸린 공원, 산책로 끝에서 이어지는 한강습지공원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규모의 녹지 공간이다.

아파트 단지 옆으로 10분쯤 걸으면 서울식물원이 나온다. 날씨 좋은 날에는 늦은 저녁에도 무리를 지어 달리기하는 사람, 가족과 산책을 나온 사람,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이 보인다.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꽃과 나무는 ‘변두리라도, 근사한 동네에 사는구나’하는 뜬금없는 생각마저 들게 만든다. 사실 처음부터 그럴싸했던 동네는 아니다. 직장까지 멀지도 가깝지도 않으면서 집값이 싸다는 이유로 뿌리를 내렸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주택가 근처에 눈이 있고 한여름 밤에는 개구리가 운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었다.

갑자기 동네 숲의 가치가 궁금해진 건, 둘째 아이 때문이다. 얼마 전에 큰마음 먹고 창호를 교체하기로 결정하면서, 아이 방과 연결된 베란다 사이의 유리를 불투명으로 바꾸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돌아온 답이 엉뚱했다. “침대에 누워서 창문 밖 나무들과 하늘을 보는 게 좋아요.” “왜 좋으니.”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평화롭고 따뜻해요.”

과거에는 찾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동네마다 숲 혹은 공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숲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도 있고, 제법 울창한 곳도 있다. 동네 숲은 어떤 가치를 지니며, 가치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소셜벤처 트리플래닛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4개 도시 숲(서울로 7017, 청계천, 어린이대공원, 수도권매립지)이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흡수, 공기 정화, 사막화 방지 등으로 연간 46억7000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를 준다고 한다. 눈길 가는 지점은 ‘이산화탄소 흡수’다. 기후재난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힘을 키우고 있어 ‘탄소중립’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탄소중립은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핵심은 ‘흡수’와 ‘저장’이다. 주요국에선 탄소흡수·저장 기술 개발과 밸류체인 구축에 뛰어

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의 시범 도입에 돌입했다.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 차원에서 탄소 흡수·저장은 존망의 문제로 떠올랐다.

숲의 가치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숲은 거대한 탄소 흡수·저장 시설인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안겨주는 자원이다. 우리는 대대적인 산림 조성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림은 1973년 시작한 국토녹화 사업으로 반전을 이뤘다. 한국의 산림 면적은 2020년 기준으로 629만8000헥타르(ha)이고, 탄소흡수량은 4560만tCO<sub>2</sub>(이산화탄소톤)이다. 산림청에서 계산했더니, 한국 숲의 공익가치는 연간 25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탄소 흡수·저장에 따른 가치가 97조6000억원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숲을, 특히 동네 숲(도시 숲)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 개발 대상 혹은 장식용 정도로 생각하는 듯하다. 공들여 만든 도시 숲을 밀고 그 자리에 공연시설을 짓겠다는 발상을 할 정도다. 한국의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은 11.48㎡(약 3.5평)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기준 15.0㎡(약 4.5평)에 못 미친다.



제시된 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Blank space for summarizing the article's main content.

제시된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동네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마인드 맵(mind map)으로 정리해 보세요.

Blank space for creating a mind map about the benefits of neighborhood forests.

동네 숲을 지키기 위해 실천해야 할 청소년 행동 강령을 만들어 보세요.

연번	청소년 행동 강령
①	
②	
③	
④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의 숲을 직접 방문한 후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해 보세요.

항 목	내 용
표제	
부제	
본문	



## 2. 숲과 관련된 노래 형상화하기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이름을 딴 '슈가숲'이 생겨 이를 계기로 숲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숲이 국민의 건강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여가 활동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는데 이밖에도 숲이 지닌 여러 가지 지능을 생각하면서 숲과 관련된 노래를 이미지화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몇 가지 활동을 해봅시다.

※ 출처: 아시아경제 2024년 3월 21일 인터넷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북한산 가기 싫다는 자녀... "슈가숲 보러가자" 해보세요

#### 북한산에 BTS '슈가숲' 생다... 32번째 생일 프로젝트

서울 북한산에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이름을 딴 '슈가숲'이 생겼다고 서울환경연합이 21일 밝혔다.

환경연합은 슈가의 국내외 팬 약 400명과 함께 지난 9일 북한산 생태탐방원 내 산사나무, 개쉬땅나무, 병꽃나무, 쥐똥나무, 조팝나무, 수수꽃다리 등 교목 및 관목 293주와 구절초, 금꿩의다리, 바위취, 붓꽃 등 초화류 280본을 심어 슈가의 32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슈가는 평소 환경에 대한 활동을 통해 팬들을 비롯한 대중과 소통했다고 환경연합은 전했다. '제76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대표한 연설을 통해 동시대를 살고 있는 미래세대를 '로스트



북한산 생태공원에 들어선 BTS '슈가숲' [사진제공=서울환경연합]

제너레이션'이 아닌 '웰컴 제너레이션'이라 명명하며 희망을 잃지 말기를 당부했었고, 애니메이션 '베스티언즈' OST에 참여해 환경에 대한 Z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산불 피해 이웃 돕기 성금 1억원을 전하며 산불 피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환경연합은 "슈가의 선한 영향력은 팬

들이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줬다"면서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증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미래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 '슈가숲'을 통해 팬들의 환경보호 활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슈가서포터즈 관계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국립공원공단 북한산 생태탐방원,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첫 번째 슈가숲을 오픈하게 되어 정말 뜻깊다"면서 "아티스트를 서포트 함과 동시에 미래 환경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기쁘며, 이 숲을 통해 슈가의 선한 영향력이 많은 분들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허미담 기자

'슈가숲'이 가지는 긍정적 기능을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세요.

신문 기사 속에 등장하는 나무들의 특성을 정리해 보세요.

구 분	특 성
산사나무	
쥐똥나무	
조팝나무	
수수꽃 다리	

신문 기사 속에 등장하는 초화류의 특성을 정리해 보세요.

구 분	특 성
구절초	
금꿩의다리	
바위취	
붓꽃	

내가 좋아하는 가수와 산을 정한 뒤에 숲 이름을 지어 그에 관련된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구 분	특 성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산	
숲 이름	
숲 이름 설명하기	

최유리의 '숲', 라마((Rama)의 '숲으로 가자', 동요 '숲속 풍경' 또는 자신이 직접 고른 숲에 관한 노래를 듣고 주요 이미지를 형상화하세요.

구 분	내 용
가수와 노래 제목	
가사(주요 부분)	
이미지 형상화	

※ 이미지 형상화는 자신이 선택한 노래를 듣고 떠오른 장면을 연필로 간략하게 스케치한 뒤에 색칠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하면 됩니다.



### 3. 우리 학교에 숲 정원 꾸미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교육 차원에서 학교에 숲 정원을 꾸미는 활동도 일종의 산림 관리 활동입니다. 학교에 숲 정원을 만드는 것은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생각하게 하는 활동입니다. 학습과 삶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우리 학교를 상징하는 숲 정원을 꾸며봅시다.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학교숲 조성의 의미를 알아보는 활동을 해봅시다.

※ 출처: 대한경제 2024년 3월 14일 인터넷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과천시, 과천고등학교에 학교숲 조성...도심지 녹지 공간 지속적 확대 정비

과천시는 과천고등학교 교내에 '학교숲'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과천시는 과천고등학교에 학교숲 조성을 위해 연면적 900㎡에 수목 1100여 그루와 초화류를 심고, 앉음석을 설치하는 공사를 5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학교숲은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녹지량 확충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연 체험학습 기회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정서를 갖게 하는 이점이 있다.



과천시가 5월말까지 조성하는 과천고등학교 교내 '학교숲' 조경도 / 사진: 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앞으로도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관내에 학교숲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라며 "학교숲이 학업에 지친 우리 청소년들에게 휴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학교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3월 관내 각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 조성 취지에 대한 적합성과 조성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남상인 기자

신문 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세요.

과천시가 '학교숲'을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학교숲'이 조성되었을 때 효과를 4컷 만평으로 표현해 보세요.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상징하는 '숲 정원'을 디자인해 보세요.

구분	특성
학교 이름	
주소(위치)	
교훈	
교목	
주변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	
학교 숲 정원 디자인	
학교 숲 정원 디자인 설명	

※ 학교 숲 정원을 디자인할 때는 교목, 주변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를 반영하여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그 의미를 학교 숲 정원 디자인 설명 칸에 알기 쉽게 정리하세요.



# 4.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란

올해 11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열립니다. COP는 어떤 행사인지 알아보고, 기후변화를 막고 삼림을 보호하기 위해 COP의 합의문에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지 고민해 봅시다.

다음 기사를 읽고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해 알아봅시다.

※ 출처: 중앙일보 2023년 12월 14일 14면 기사 일부 발췌. 원본은 QR코드 참고

## COP28 “탈화석연료 전환” 합의... ‘퇴출’ 대신 ‘감축’ 그쳐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참가국들이 진통 끝에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이른바 ‘탈화석연료 전환’에 합의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은 폐막일을 하루 넘긴 13일 ‘탈화석연료 에너지 전환’ 문구를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의장국 UAE가 작성한 합의문 초안에 ‘화석연료 퇴출’ 문구가 빠져 논란이 일었다. 마라톤 회의 끝에 ‘탈화석연료 전환’이라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의 이선우 외교팀장은 “COP27까지는 화석연료 문제가 합의문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감축이라는 목표를 합의문에 분명히 적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그밖에 ▷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3배로 늘린다. ▷ 화석연료 보조금을 가능한 한 빨리 퇴출한다. ▷ 탄소포집·저장(CCUS)기술 등 저배출·무배출 기술 발전을 가속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제사회는 2050

년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탈화석연료를 제시했는데,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합의문에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이 삽입됐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50년에도 국내에서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삼척 블루파워)가 내년 초부터 2053년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COP28에서는 석탄 발전 감축과 탈화석연료 전환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COP29나 COP30에서 이에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산업정책과장은 “국제사회가 감축해야 한다는 석탄 발전은 저배출 장치를 달지 않은 것”이라며 “삼척 발전소는 CCUS장치를 갖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소연료, CCUS 등 저배출 기술 발전 등을 통해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COP28에서 정부가 띄운 무탄소연합(CF100)이 이를 담고 있다. 단순히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보다 ‘배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하

지만 국제사회 공감은 얻지 못한 분위기다. CF100에 가입한 다른 국가가 없고, 이번 COP28 기간 한국은 국제시민단체 기후행동네트워의 ‘오늘의 화석상’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썼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로 확대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5% 미만으로, 10%대인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지금의 3배로 늘려도 국내 비중이 15% 수준이라 부담은 크지 않다. 다만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38%로, 석탄을 제치고 최대 전력원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지금처럼 국제적으로 계속 ‘기후 약당’으로 지목될 경우 기업 등이 해외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은혜 기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가 어떤 행사인지 조사하여 정리해 봅시다.

Blank area for student research notes.

제시된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진행된 COP28의 최종 합의문 내용을 정리한 뒤, 의미 있는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 적어보세요.

<COP28 합의문의 주요 내용>

의미 있는 점	아쉬운 점
---------	-------

다음 기사를 잘 읽고, COP29의 최종 합의문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고민한 뒤 내가 생각하는 COP29 합의문을 작성해 봅시다. 단, 합의문에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산림 보호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 출처: 한겨레신문 2024년 1월 10일 2면 기사



<COP29 최종 합의문>

Blank area for student writing the COP29 agreement.



## 5. 탄소 배출량 세계 8위 한국, 탄소 중립 방법은?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데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지만, 산업 발전이 멈출 수 있다는 점은 고민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 아래 빈칸에 스크랩해 보세요.

 신문 기사 붙이는 곳  
 자료 크기가 클 경우, 접어서 붙입니다.

스크랩한 기사를 바탕으로 아래 용어들의 의미와 배경 등을 조사해 정리해 보세요.

용어	의미와 배경
탄소 중립	
탄소 배출권	
탄소 시장	
파리 협약	
교토 의정서	

탄소 배출과 산업 발전의 연관성을 생각해 본 뒤, 탄소 배출권 거래의 장단점을 조사해 보세요. 기후 위기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탄소 배출권 거래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사실 형태로 정리해 봅시다.

구분	나의 생각
장점	
단점	
나의 의견 (사실)	

한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상쇄해 '0'을 만든다는 의미의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이를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제거량을 늘리는 방법을 정리한 뒤 신문 광고로 표현해 보세요.

구분	방법	〈신문 광고의 예〉
탄소 배출량 줄이는 방법	국가	한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상쇄해 '0'을 만든다는 의미의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이를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제거량을 늘리는 방법을 정리한 뒤 신문 광고로 표현해 보세요. ※ 신문광고 예시는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기업	
	가정	
탄소 제거량 늘리는 방법		



# 6. 탄소를 흡수하고 제거하는 산림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선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지만, 이미 뿜어져 나온 탄소를 제거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산림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탄소의 흡수와 제거인데요, 우리나라와 세계 산림의 탄소 흡수능력에 대해 알아보시다.

다음 기사를 읽고 산림과 탄소 중립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출처: 전자신문 2021년 4월 26일 5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국립공원, 年330만톤 CO<sub>2</sub> 빨아들이는 ‘한국의 허파’

(중략)

### ◇탄소흡수원으로서 국립공원

전문가들은 국립공원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탄소흡수원이자 탄소저장기능을 한다고 강조한다. 조우 상지대 조경환경학과 교수는 “국립공원은 주로 산림과 해안 습지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들이 탄소 흡수원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나무로 꼽히는 소나무 30년생으로 이뤄진 숲1ha는 매년 11톤의 CO<sub>2</sub>를 흡수한다. 이는 승용차 5.7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규모다. 이를 국립공원 전역으로 넓혀보면 자동차 1만7000여대가 뿜는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것이다. 한희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사는 “나무는 낮에 광합성 작용을 통해 산소를 내뿜고 CO<sub>2</sub>를 흡수한다”면서 “밤에 이화작용으로 CO<sub>2</sub>를 내뿜지만 흡수량이 훨씬 많아 탄소흡수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도 산림조성을 통한 온실가스감축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말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담

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한 미국, 영국, 싱가포르, 포르투갈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2050년까지 신규산림 2000ha 이상 만들것을 발표했다. 이는2005년 산림조성 면적 대비 80%이상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다. 영국도 1100만그루 조림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싱가포르는2030년까지 200ha이상 생태숲공원 조성100만그루심기운동을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산림청에서 탄소중립전략 일환으로 2050년까지 30년간 30억그루 나무심기를 발표했다. 나무심기로 온실가스 3400만톤을 흡수 할계획이다.

탄소흡수원으로 바다의 역할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블루카본으로서 갯벌복원을 확대하고 바다숲도 2386ha 추가 조성해 탄소흡수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중략)

◇국립공원 가치 과학적 규명도 시도 국립공원공단은 직접 탄소중립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먼저 훼손된 숲 복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립공원의 약 54%를 차지하는 일본잎갈나무림, 리기다소나무림

등 인공림 자연림으로 되돌리고, 저지대 중심으로 숲을 만들고 훼손된 곳을 복원할계획이다. 또 정상중심 탐방으로 훼손된 숲생태계를 복원하고 대신 저지대에서 탐방객이 즐길 수있는시설을확대하기로 했다. 해상과 해안국립공원에선 섬지역에 붉가시나무 등 상록활엽수림을 복원하고 갯벌에 갯잔디, 갈대, 갯매꽃 등 염생식물을 바다에는 거머리말등 해조류를 심어 블루카본을 확대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공단건물에 태양광등을 설치해 자가발전율을 높이고 친환경차 운행도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흡수원으로서 국립공원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한다. 공단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탄소저장량과 흡수원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없다”면서 “그 가치와 수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추진 중인 탄소흡수원을 확대하는 일의 성과를 과학적으로 검증, 정책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위 기사 내용을 제시어를 중심으로 정리한 뒤 전체 줄거리를 요약해 보세요.

제시어	요약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탄소 흡수 규모	
세계 여러 나라의 산림 조성 현황	
탄소 흡수 외에 산림의 역할	
<전체 줄거리 요약>	

다음은 나무의 종류와 나이대에 따른 탄소 흡수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표의 내용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산림청의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 심기 계획에 대해 건의할 내용을 독자 투고 형식으로 정리해 보세요.

<표 6> 주요 수종별 연간 CO<sub>2</sub> 흡수량(tCO<sub>2</sub>/ha/년)

수종	입령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강원지방 소나무	7.5*	9.6	10.1	10.0	9.6	9.0	8.2	7.5	6.7	6.0	5.4	4.7	4.2
중부지방 소나무	3.5*	5.2*	6.9*	15.8	12.4	9.0	6.4	4.6	3.3	2.4	1.8	1.4	1.1
잣나무	5.4*	10.6	11.8	11.6	10.8	9.9	9.1	8.3	7.6	7.0	6.5	6.1	5.7
낙엽송	9.1*	9.4	10.5	10.0	9.5	8.9	8.5	8.1	7.9	7.6	7.5	7.3	7.2
리기다 소나무	4.5*	10.5	13.9	13.8	12.4	10.5	8.7	7.1	5.8	4.8	4.1	3.5	3.1
편백	5.2*	8.0	8.8	8.8	8.2	7.4	6.6	5.8	5.2	4.6	4.1	3.7	3.4
상수리 나무	11.2*	13.1*	15.9	14.9	14.0	13.1	12.3	11.6	10.9	10.4	9.8	9.3	8.9
신갈나무	8.6*	11.9*	15.0	11.8	9.3	9.1	8.4	7.9	7.5	7.1	6.8	6.5	6.3

\* 임분수확표에 없는 자료로 추정치를 적용한 값임.

\*\* 임분수확표의 임분단위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입령기준의 흡수량을 제시함.

자료: 국립산림과학원-NiFoS 산림정책이슈 제129호

### 독자 투고

한국 국민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연간 11.66톤(2020년 기준)입니다. 호주·미국·캐나다 바로 다음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양의 탄소를 내뿜고 있는데요. 아래 기사를 참고해 내가 내뿜는 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나만의 정원’을 계획해 보세요.

※ 출처: 한국일보 2023년 12월 6일 27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도시정원과 탄소

(중략) 삭막한 회색 도시 공간에서도 이렇게 마음의 여백을 선사하는 크고 작은 정원은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 능력도 높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가꾸는 작업은 우리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마음에 치유와 영감을 주며, 삶의 빛깔을 초록으로 바꿉니다. 지역 공동체가 함께 공공 정원을 돌본다면, 분명 좀더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게 되리란 생각이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 곳곳에 나무가 가득한 도시 숲이나 정원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탄소를 흡수해 기후 위기를 완화하고, 야생생물과의 조화로운 공존

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도시 문제는 물론, 지구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이지요. 실제로 순천만국가정원의 경우, 버려졌던 땅에 정원을 조성해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꽃과 나무로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ha당 20톤가량의 탄소 흡수 효과를 추가로 얻는다고 합니다. 또 탄소를 배출하던 논에 조성된 국립세종수목원의 경우 ha당 탄소 24톤을 흡수하는데, 수목원 전체로 환산하면 중형차 729대가 1년간 1만km를 운행했을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나무가 많으니, 조금 더 크게 자라게 하면 이보다 더 많은 양을 흡수하겠지요. 물론, 우리의 정원

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작은 힘을 보탬 수 있습니다. △좀더 탄소 흡수량이 많은 식물을 골라 심고 △정원 시설은 목재로하고 △땅에는 탄소구 조물을 넣어 식물에게 도움을 주고 △흙을 써야 한다면 탄소 발자국을 줄이도록 가까운 곳에서 가져오고 △빗물을 이용하는 레인 가든을 조성하는 것 등입니다. 한 해가 지물어 갑니다. 우리가 겪었던 놀랄 만한 기후 변화들이 내년엔 조금씩 완화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가까운 내 고향의 공간에, 그리고 내 마음에 나무를 심으며 말이죠.

이유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



### <나만의 정원 가꾸기 계획서>



# 7. 심고 베고 또 심는 지속 가능한 숲

숲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제대로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끊임없는 관리도 요구됩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숲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기후변화와 탄소와 숲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4년 3월 11일 24면 기사.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기후와 에너지와 탄소와 숲



김형웅의 메타어스

지구는 열려 있을까 닫혀 있을까? 지구는 물질 측면에서 닫힌계다. 운석이 떨어지고 로켓이 날아가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일일 뿐 우주와 꾸준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물을 보더라도 지구 표면에서 증발한 수증기는 높이 상승해 구름이 되어 비로 내렸다가 다시 증발해 대기로 돌아가는 영원한 순환 고리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에너지는 어떨까?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약 30%는 바로 반사되어 우주로 돌아간다. 남은 양의 일부는 지구를 데우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물의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간 변화를 일으키는 데 쓰인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지구 또한 끊임없이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한다. 이

렇듯 지구는 에너지 측면에서 열린계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나가는 에너지가 감소하면 지구가 더워진다. 가계의 수입이 늘거나 지출이 줄면 자산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2023년에 출판된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제6차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는 더워지는 이유가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 우주로 나가는 에너지가 줄기 때문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지구 표면에서 흡수된 태양 에너지의 절반가량은 물의 상태변화에 이용된다. 즉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물, 에너지, 탄소의 순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식물은 기후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성장한다. 광합성은 빛 에너지, 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포도당을 합성하는데 땅속에 존재하는 액체 상태의 물을 빨아들여 절반은 이용하고 절반은 수증기로 방출한다. 다시 말해 물, 에너지, 탄소 순환의 접점에는 식물이 존재한다. 식물의 광합성

은 매년 내리는 1000억톤 이상의 육상 강수 중 삼분의 일 가량을 기화시켜 대기로 돌려보낸다. 또한 인간이 배출하는 약 400억톤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중 삼분의 일 가량을 다시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식물은 기후 시스템의 핵심 요소이며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필수 고려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나무도 수명이 존재한다. 성장기 나무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만 노년기 나무는 그렇지 않다. 시간이 가면 숲에서 식물이 호흡하고 사체가 분해되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광합성으로 흡수하는 양보다 많아지는 때가 도래한다. 산불도 간과할 수 없다. 2023년 전세계에서 산불로 방출된 탄소는 20억톤이 넘었다.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80억톤 상당이다. 이는 인간이 배출한 양의 오분의 일에 가깝다. 따라서 보존도 중요하지만 산림을 젊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 흡수량을 극대화하고 방출량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목재의 효율적인 이용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육상 식물은 약 4500억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이는 지구 대기에 존재하는 탄소의 절반에 상당하는 양이다. 따라서 이를 고체 상태에서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 또한 기후변화 대응의 완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나무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이미 주요한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대기에서 흡수한 탄소가 연소하며 다시 대기로 돌아가는 닫힌계 순환이다. 즉 과학적으로는 “넷 제로”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연료로 이용하는 양을 숲의 성장보다 적게 유지하거나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기술로 제거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변화 시계는 더 빨리 돌아갈 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평가할 때 단편적인 면만 보면 안되는 이유이다. 그리고 변화하는 기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선택해 걸어가야겠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제시된 기사에서 나무의 수명과 관련된 단락을 찾아 밑줄을 긋고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세요.

제시된 기사에서 숲의 식물들이 ‘물, 에너지, 탄소 순환의 접점’에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식물의 역할을 그림으로 도식화해 표현해 보세요.



아래 기사를 참고해, 지속 가능한 숲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나무 심기와 더불어 벌목과 수종관리가 중요한 이유를 정리한 뒤, 한 컷 만평으로도 표현해 보세요.

출처: 중앙일보 2023년 4월 7일 24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소나무를 베야 숲이 산다

최근 산불이 잦다. 식목일을 앞두고 며칠 사이 53건의 산불이 발생한 탓에, 올해는 1986년 이래 최단 기간 가장 많은 산불이 일어난 해로 기록됐다. 이렇게 산불이 급작스레 늘어난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예년보다 봄철 기온이 부쩍 오르고, 건조한 날씨가 오래 지속하니 산불이 나기 쉬운 조건이 갖춰져서다. 그렇지만 원인의 가장 큰 몫을 기후변화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 기후변화라는 장기적 흐름을 단기간의 예방 정책만으로 바꿀 순 없어서다. 그러나 원인 비중은 적어도 쉽게 바꿀 수 있는 원인을 찾는 게 우선인데, 그게 바로 소나무다.

우리나라 삼림에는 소나무 비중이 유독 높다. 2022년 산림임업통계에 따르면 전체 삼림 면적의 36.6%를 소나무가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경북 지역은 소나무 비중이 49.6%에 달한다. 이런 경향은 최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닌 게, 1991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생한 대형산불(100ha 이상의 피해 면적을 낸 산불) 발생지와 2016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소나무 숲 분포도를 겹쳐보면 산불과 소나무숲 간에 높은 상관성이 보이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소나무라는 종 자체가 불에 취약하다. 소나무는 불이 불기 쉬운 송진(松津)을 분비하는 것에 더해, 사시사철 잎이 푸른 상록침엽수다. 선비들에게는 이것이 절개의 상징으로 보였으나, 화마(火魔) 눈엔 소나무 잎도 겨우내 바싹 마른 좋은 산불 연료일 뿐이다.

두 번째는 산림관리 정책 때문이다. 조선시대부터 소나무는 귀한 목재로 사용되어, 소나무를 벌채하는 것을 막는 송금(松禁) 정책이 오래 시행되었다. 그렇게 귀하게 조성된 숲이지만, 정작 그 목재를 사용할 건물이나 선박이 숲보다 먼저 사라지며 벌채 필요성은 사라졌다. 방치된 숲은

보호림인 국립공원이 되었고, 소나무 밀도는 지나치게 높아졌다. 가뜰이나 화재에 취약한 종인데, 뽕뽕하게 붙어서 자라기까지 하니 소나무숲이 산불 취약지대가 된 건 당연한 결과다.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생물 다양성이 극적으로 감소한다. 나무는 물론 작은 동물과 곤충도 타죽은 탓에 다시 숲으로 복귀하는 데 최소 30년이 걸린다. 그러나 숲을 살리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숫자란 소나무를 베어내야만 한다. 소나무가 무가치해졌으니 마구 베어내지는 게 아니다. 과도하게 뽕뽕하게 붙어 자라는 소나무는 속아내기를 하고, 상대적으로 산불에 강한 활엽수를 섞어 심어 산불이 커지는 걸 막자는 뜻이다. 벌목이 주는 정서적 거부감은 이해하지만, 산불 피해에 노출된 자연과 인간 모두를 지키기 위한 최선을 고민할 때다.



박한솔 약사 · 작가

	한 컷 만평



## 8. 나무도 훌륭한 자원

흔히 우리는 나무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도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산림 정책을 통해 나무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재가 자원으로써 갖는 가치를 알아봅시다.

다음 기사를 읽고 목재의 가치를 알아보는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아시아경제 2024년 2월 29일 24면 기사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쌀처럼 목재도 수확...산림자원 순환·효용성 높여야”

“논에서 벼를 생산하는 것처럼, 숲에 나무를 심어 목재를 수확(벌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조금은 친숙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8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남 청장은 “우리는 해마다 논에 벼를 심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주식인 쌀을 얻는다”면서 “목재 수확 역시 산림경영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산림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얻고 다시 채워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치산녹화로 헐벗었던 산림에 푸른 옷을 입히는 데 성공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동안 입목축적도 늘었다. 산림 1ha당 입목축적이 1980년대 22㎡에서 2000년 63㎡, 2010년 126㎡ 등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룬 것이다. 2022년에는 입목축적이 172㎡로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8㎡)을 훌쩍 웃돌았다.

입목축적은 일정 면적 안에서 성장하는 나무의 총부피를 의미한다. 입목축적 양이 늘어날수록 나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목재의 양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순히 산에 푸른 옷을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나무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셈이다.

남 청장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으로 황폐해졌던 우리나라가 치산녹화 사업으로 산림을 빠르게 복원·성장시킨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주지의 사실”이라며 “현재는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이 주는 경제·사회·환경적 풍요로움까지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자부했다.

그는 과거의 패러다임(단방향의 자연보호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조림 → 숲 가꾸기 → 목재수확(벌채) → 조림’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림을 그저 보호의 대상으로만 정의·관리할 것이 아니라 보호와 활용의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 청장은 “보호할 숲은 보호하되, 자원으로 활용할 숲은 별도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현재 산림청이 추구하는 일관된 산림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태적 가치를 가진 산림을 온전히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자원으로 활용할 숲과 나무는 적절한 시기에 수확하고, 비워진 자리를 새로운 나무가 다시 채워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과정이 산림경영의 기본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절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목재 수확에 대한 국민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이를 해소하는 것은 산림청의 숙제로 남는다. 남 청장은 “나무를 베어 내는 것에 막연한 거부감 또는

과거 치산녹화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강한 자연보호 인식이 목재 수확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운다”며 “반면 과거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만큼 국민 인식을 개선해 자원으로써 산림의 효용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이 산림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목재 수확의 부정적 이미지는 국산 목재 자급률 저조로도 이어진다. 2022년 기준 국내 연간 목재 소비량은 2968만㎡로, 국산 목재 자급률은 15%에 그쳤다. 친환경 소재로 일상에서 목재의 쓰임이 차츰 늘어나는 추세지만, 정작 국산 목재 자급률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충당되지 않는 목재 대부분을 수입해야 한다. 지난해 해외에서 목재를 수입하는 데 44억달러(7조원 상당)를 지출한 것으로 산림청은 집계했다.

남 청장은 “산림청은 목재 수확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목재 수확 후 3년 이내 조림을 의무화(산림보호법 명시)하고, 정해진 구역 안에서 목재를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경제림 육성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막연한 거부감과 반대보다는 산림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일용 기자

인터뷰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Blank area for summarizing the interview article.

제시된 기사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에 대한 추가 학습을 전개해 보세요.

주요 개념	조사한 내용
산림경영	
선순환 구조	
치산녹화사업	
입목축적	

목재 수확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보세요.

Blank area for creating a catchphrase.

※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는 광고, 선전 따위에서 남의 주의를 끌기 위한 문구나 표어를 말한다.

목재로 만들어진 물건들을 소개하고 재료 측면에서 목재의 장점을 설명해 보세요.

목재로 만든 물건	재료 측면의 목재의 장점

산림청에서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18년 10월부터 도입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세요.

Blank area for summarizing the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9. 산불 증가 대응책 마련하기

산불은 자연 생물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인간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동식물들은 자신의 터전을 잃을 수 있고, 토양 침식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산림 생태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산불 대응책을 마련해 봅시다.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산불 증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 출처: 중도일보 2024년 3월 12일 19A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산불 부주의로 빈발, 경각심 가져야

행락철인 봄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비와 눈이 많이 내린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산불이 줄었으나 안심할 수만은 없다. 휴일인 10일 공주 정안, 충북 옥천 등 전국 9 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산림청은 기온이 오르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3월 중순부터 산불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우선 남부지방의 산불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한 해 평균 산불은 567건이 발생해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00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3월에 발생한 산불은 연간 건수의 25%에 이르고, 피해 면적은 전체 59%인 2347ha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봄 홍성군 서부면 등을 덮친 산불 피해는 1474만㎡에 달한다. 당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홍성 등 5개 시군의 피해액이 32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했다.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186건(33%)으로 가장 많고, 쓰레기 소각 71건(13%), 논 밭두렁 소각 68건(12%) 등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산에 불을 내 검거된 사람만도 2263명에 이른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10일 공주 정안면 산불도 인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 면적의 7배 이상을 태운 미국 텍사스주 산불은 대재앙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초대형 산불이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경고한다. 2022년 3월 4일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 삼척까지 번진 산불은 역대 최장인 10일 동안 2만923ha를 초토화시켰다. 망가진 산림생태를 복원하기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산불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대폭 줄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을 원그래프로 나타내보세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증가 대응책을 3가지 정도 정리해 보세요.

- 1) \_\_\_\_\_
- 2) \_\_\_\_\_
- 3) \_\_\_\_\_

STW 활동으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정리해 보세요.



▲ 2022년 3월 4일 오전 11시 17분께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밤늦은 시간까지 확산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산불 3단계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했다. 산불 3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 평균 풍속 초속이 10m 이상일 때 발령된다. <산림청 제공>

구 분	내 용
See	
Think	
Wonder	① ② ③ ④
Wonder에 대한 대답	① ② ③ ④

※ STW 활동은 제시된 산불 사진에서 보이는 것(See)을 모두 명사형으로 정리한 뒤에 생각하는 것(Think)을 쓰고, 산불에 관한 궁금한 것(Wonder)을 질문 형태로 4가지를 후, 그에 대한 대답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정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See 칸에는 '산불', Think 칸에는 '산불이 나무들을 모조리 태우고 있다.', Wonder 칸에는 '산불이 발생한 숲은 어떤 과정을 통해 복원될까?', Wonder에 대한 대답 칸에는 '피해목 제거, 묘목 생산, 사방사업, 나무 심기 등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라는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 10. 내가 찾은 한국의 명품 숲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숲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숲은 각박한 도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힐링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숲을 찾아보고 이들 숲이 갖는 유형, 무형의 가치를 알아봅시다.

기사를 읽은 뒤에 다음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28일 7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알록달록 색깔 · 순백의 자연’ 가을 · 겨울 숲의 변신 다채

3. 백두대간트레일 6구간 · 자작나무숲  
인제 방태산 · 원대리 위치  
사계절 아름다운 숲 8경 선정

추운 겨울 날씨 두꺼운 옷을 입고 어린 가을 나가기 쉽지 않지만 유독 이 계절에 아름다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

알록달록 다채로운 색깔로 변신하는 숲을 볼 수 있는 가을 백두대간트레일 6구간(아침가리)과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자작나무숲이다.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에 위치해 있다. 북부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지난 1월 이곳을 ‘사계절 아름다운 숲 8경’으로 선정했다.

백두대간트레일 6구간인 ‘아침가리’는

인제군과 홍천군 경계 방태산에 위치한 다. ‘아침가리’는 “아침에 발을 간다”는 뜻으로, 산골이 깊어 햇볕이 잠시 드는 아침에만 발을 갈 수 있다는데서 유래했다. 방동약수를 시작으로 원당초교까지 22.5km 구간이다.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을 따라 걸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울창하고 건강한 산림의 알록달록한 단풍을 보고 있다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모두 잊기에 충분하다. 방동약수터 주차장이 있어 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갖췄다. 인제 자작나무숲은 방송으로 많이 접했을 유명 겨울 명소다. 산림청은 지난 1992년 6ha 규모의 이 숲을 조성했다. 가슴높이 지름이 평균 14cm, 수고가 10m인

자작나무 5500여 그루가 자란다. 이곳 역시 원대리자작나무숲 주차장이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곳은 파릇파릇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봄, 여름에도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단연 최고는 겨울이다. 자작나무의 하얀 수피와 겨울철 흰 눈이 만들어내는 몽환적 분위기, 아름다운 풍경을 통해 차가운 한 겨울에도 포근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임하수 청장은 “차갑지만 포근한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물길을 따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인제 백두대간트레일 6구간과 숲속의 순백을 느낄 수 있는 자작나무숲 방문을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권혜민 기자



자작나무를 비롯한 우리나라 숲에 많이 서식하는 나무들의 주요 특징을 설명한 뒤 사진을 붙이거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나무 이름	특징	이미지(사진 또는 그림)
자작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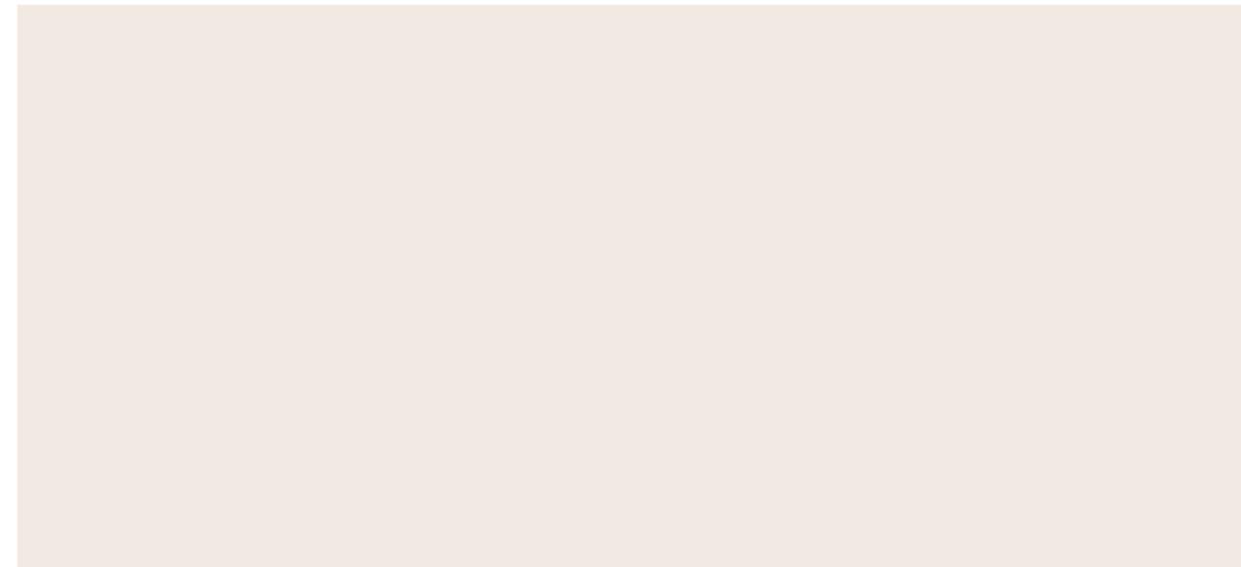
각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숲을 소개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숲을 선정한 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숲 이름	위치	숲 소개
최고의 숲		

자신이 가고 싶은 세계의 주요 숲에 대해 챗GPT를 사용해 조사하여 정리해 보세요.

숲 이름	위치 및 면적	특징

숲이 갖는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포스터를 그려 보세요.





# 11. 숲을 지키는 파수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숲이 갖는 가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숲의 가치를 알리고 보호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숲을 지키는 일을 직접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알아보시다.

기사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광주일보 2023년 7월 20일 20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숲속에서 자연의 소중함 전달하니 행복해요”

‘전남도 숲 교육 경연대회’ 스타강사 탄생  
대상 최선희 씨 등 13명 유아숲 교육 숲 해설 등 수상 영예  
전국 경연대회 참여 혜택 10월 세계산림치유대회 시연

코로나 19 이후 숲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 속에 머물며 힐링과 치유의 감정을 느끼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다. 홀로 조용히 산책하는 것도 좋지만 숲해설가의 안내를 받으며 설명을 듣고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다보면 숲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전남도 주최로 최근 순천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열린 ‘2023 전라남도 숲 교육 경연대회’에서 13명의 산림문화 관련 스타강사가 탄생했다.

숲 해설, 유아숲 교육, 산림치유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경연의 대상은 최선희(60)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유아숲지도사가 차지했다. 생태어린이집 교사로 재직하며 평소 유아들의 숲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 유아숲지도사, 숲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난 2019년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을 시작으로 무안대죽도유아숲체험원 등에서 일했던 그는 이번 경연에서 ‘햇볕은 째째 대나무는 쑥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영예를 안았다.

“남도 지방에 많은 대나무를 활용해 교구를 제작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에 비하면 투박하지만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놀이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있어요. 대나무 배게, 악기 등은 아이들이 좀처럼 보기 어려운 것이라 신기해하더군요.” 최 씨는 “요즘 아이들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숲속을 산책하고

대나무 악기를 연주하고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씨는 산림 관련 자격증은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녁 시간과 주말 등을 활용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예전에는 퇴직 후 활동하는 이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늘 자연과 함께 하고, 곤충과 나무 등 ‘숲친구들’과 어울리며 아이들에게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숲 해설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윤정(51·사진)씨는 경력단절자들을 위한 안심되는 ‘청춘드림’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분들이 두 시간 동안 숲에서 놀이와 경관 체험을 하며 우울감을 극복하고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늘 자연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그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자 2012년부터 숲해설 공부를 시작했고, ‘숲 안내자’를 꿈꾸기 시작했다. 지금은 여수 봉화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봉화산 산림욕장 탐구생활’을 운영중이다.



2023 전남 숲 교육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최선희씨와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윤정(왼쪽)씨. (최선희씨 제공)

“제가 사랑하는 자연 속에서 일할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저는 매일 숲으로 출근하는 여자입니다(웃음). 숲치유지도사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경연에서는 조윤희 지도사의 ‘꿀벌의 비행’(유아숲 교육), 김정화씨의 ‘불빨간 사춘기 숲여행’(산림치유)이 분야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정연순·이향희·강영란씨가 우수상을, 조윤아·양선미·이인숙·이은미·고찬한·최수진씨가 장려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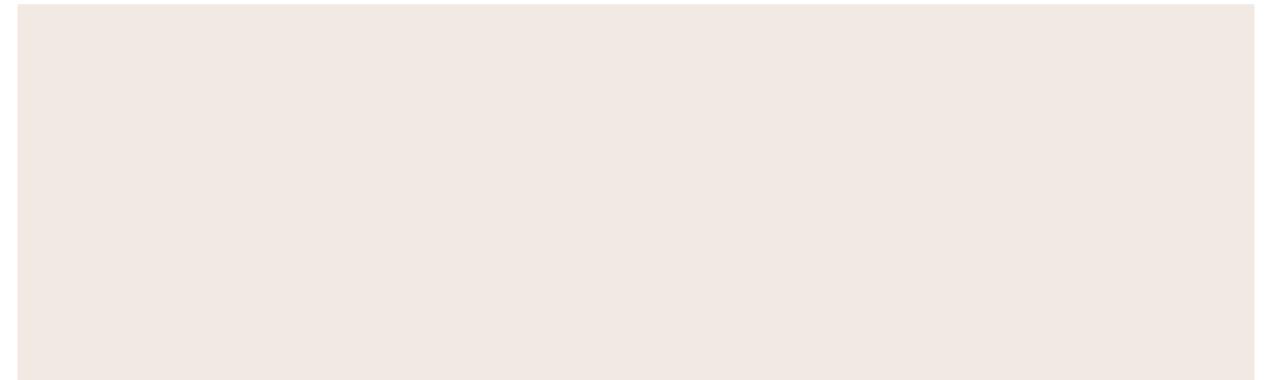
입상자들에게는 ‘전국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여 혜택이 주어지며 오는 10월 27일부터 화순에서 열리는 ‘세계산림치유대회’에 참가해 시연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또 국가 산림교육 인증 프로그램에 등록해 스타강사로서 저작권을 갖게 된다.

김미은 기자

기사를 참고하여 숲 관련 직업을 조사해 정리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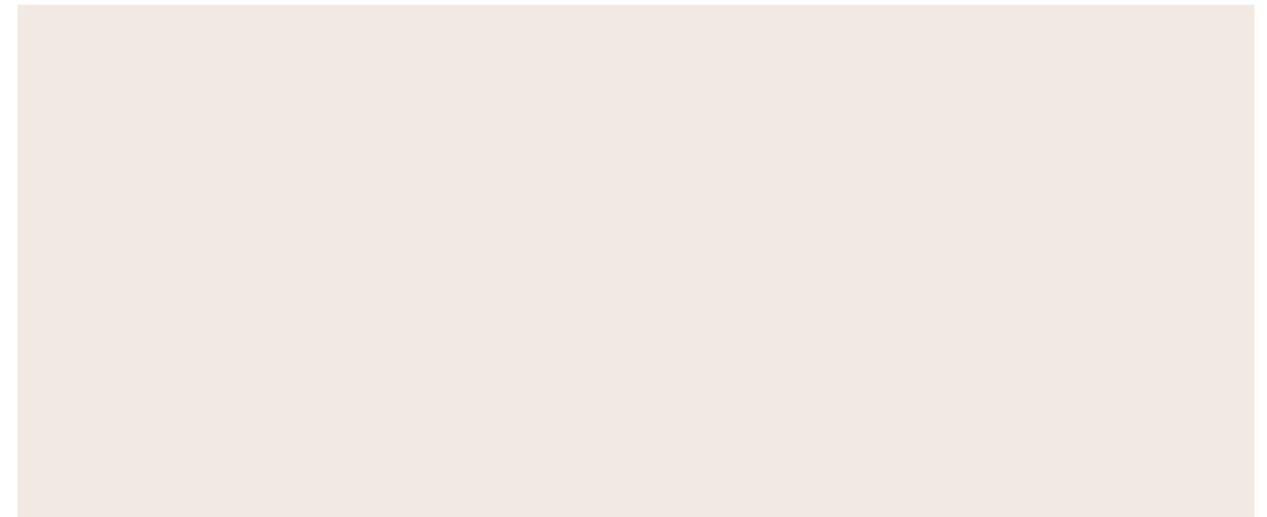
직업 이름	특 징
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	
숲치유지도사	
숲사랑지도원	
숲길등산지도사	

거주지 주변에 있는 치유의 숲을 소개하는 영상(숏폼)을 만들 때 필요한 썸네일(thumbnail)을 스케치해 보세요.



※ 썸네일 스케치(thumbnail sketch)는 작품 구상에서 초기의 내용을 메모지와 같은 작은 종이에 가볍게 대충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숲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주변 분들을 응원하고 칭찬하는 말을 작성해서 산림청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 코너에 탑재해 보세요.





# 12. 산림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준비하기

산림관리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산림이 제공하는 자연 유산과 생태학적 균형을 보존하는 데 중요합니다. 산림관리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이해 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교육과 인식을 촉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산림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전문가 인터뷰를 준비해 봅시다.

다음 신문을 읽고 산림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를 준비해 봅시다.

※ 출처: 전북일보 2024년 2월 19일 10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전북자치도, 산림의 새로운 가치 창출

산림청에서는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2024년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으로 탄소중립과 녹색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4년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목적인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산림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먼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산림육성에 나선다. 다양한 나무심기를 바탕으로 탄소흡수원 확대와 체계적인 숲의 기능·연령별 숲가꾸기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군산 섬지역에 해풍에 강한 에메달드 그린, 이팝나무, 편백나무 등

특색있는 나무와 꽃을 심어 '꽃이 피는 가보고 싶은 섬'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전(全) 생애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무장애 나눔길과 사회적 취약계층 및 보행약자 이용 편의를 위한 나눔 숲 등 치유와 휴식 공간을 적극 발굴해 숲이 주는 혜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전주 건지산 무장애 나눔길,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복지시설 나눔숲을 조성해 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셋째,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산사태 등의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숲을 보전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현장예방단 운영 등과 함께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신속한 진단과 감

염목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입차철크기 운영에 26억원을 투자해 남원, 진안, 고창에 3대를 배치, 산불위험시기(봄철 150일, 가을철 60일) 동안 운영해 초동진화 강화 및 대형산불 예방에 힘써나갈 방침이다.

넷째,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이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규모화·현대화 사업 추진 및 임산물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 품질관리 내실화도 추진한다. 또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급·관리와 이다.

강해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장



글쓰기가 제시한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산림 정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_\_\_\_\_

'산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작성한 글쓰기를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를 해봅시다.

다음의 인터뷰 준비와 마무리 과정을 참고하여 내용을 구체화해 보세요.

구분	내용
준비 단계	
인터뷰 질문 준비	① ② ③ ④ ⑤
인터뷰 진행	
인터뷰 후 처리	
인터뷰 내용 활용	

### 활동 순서

- 1) '준비 단계'에는 인터뷰 주제를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산림 보전, 산림 자원 관리, 산림 생태학 등을 참고하여 다양한 주제를 정리하면 됩니다.
- 2) '인터뷰 질문 준비'에는 주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변화, 산림 보전이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의견 등을 알아보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 3) '인터뷰 진행'에는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인터뷰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됩니다.
- 4) '인터뷰 후 처리'에는 인터뷰가 끝난 뒤에 인터뷰 내용을 상기하여 중요한 내용이나 인상적 발언을 어떻게 요약·정리할지를 기록하면 됩니다.
- 5) '인터뷰 내용 활용'에는 인터뷰 내용을 기사, 보고서, 혹은 블로그 포스트 등의 형태로 활용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 VISA

## 축하합니다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위 학생은 2024 '신문이 들려주는 숲 이야기' NIE 패스포트  
활동 주제를 수행했습니다.

담당교사(또는 부모님) 서명 \_\_\_\_\_

증명

한국신문협회는 2024 '신문이 들려주는 숲 이야기' NIE 패스포트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정우현



MEMO 

Lined writing area for page 34.

MEMO 

Lined writing area for page 35.



MEMO 

Lined writing area for page 36.

MEMO 

Lined writing area for page 37.

발행일 | 2024년 6월 1일

지은이 | 권영부 전 동북고등학교 수석교사  
김영민 명덕외국어고등학교 교감  
박형수 중앙일보 편집국 부장

발행인 | 임채청

편집인 | 정우현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층 한국신문협회

전화 | 02-733-2251~2

팩스 | 02-720-3291

홈페이지 | [www.presskorea.or.kr](http://www.presskorea.or.kr)

주최 |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후원 |  산림청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IE(신문활용교육) 패스포트(워크북)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